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8호 [루계 제25737호] 주제 106(2017)년 8월 16일 (수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조국해방 72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
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만수대언덕으로는 항일의 혁전
만리를 헤쳐서 조국해방의 혁사
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
을 일떠세우시었으며 불면불휴의
선군혁명으로 태양조선의 무궁
번영을 위한 억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암은 군중들의 물결이 끝없이
이 굽이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
인민내무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 들이 진정되었다.

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
꽃바구니들의 땅기에는 《위대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밭이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죄여져 있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 정되었다.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걸로
이끄시여 우리 조국을 불폐의 사회
주의보루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대창작사를 비롯
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들에도 다함없는
충정의 대하가 훌렸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강조국건설사상파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천하제일
강국으로 빛내여나갈 불타는 열의
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워라찌동지

나는 당신의 생일 80돐에 즈음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의 옮바른 명도밑에 형제적라오스인민이 나라의 번영과 인민민주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고 가꾸어주신 우리 두 나라 당과 국가,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 106(2017)년 8월 15일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

존경하는 각하

제5차 백두산위인청송국제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
과념원을 담아 각하께 삶이 편지를 올립니다.

우리들은 조선해방의 날과 선군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김일성각하께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일성각하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한없이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조선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만년기력을 마련하시였으며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만민의 다함없는 흥보와 창종을
받고계십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선군조선의
종합적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시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시는것으로 하여 현시대의 가장
탁월한 정치군사가로 국제사회의 친란을 받고계십니다.

역사와 현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창시하고 구현해온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가장 위대하고 정당하며 그분들의 사상과
위업을 만들어나갈 때 인류의 모든 리상과 념원이 반드시 실현
된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축전기간에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를
영원한 주체의 태양, 선군태양으로 칭송하고 김정은각하를 세계

자주화업을 승리으로 향도하시는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빛나는 영광과 긍지를 안고 백두산위인청송국제축전
을 정례화된 대정치문화축전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존경하는 각하
진보적인민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백두산대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자주와 선군의 가치높이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
시는 각하의 위인상에서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받아았습니다.

우리들은 선대수령들과 사상과 평도로 풍모도 꽂으신
각하께서 견고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성번역
과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고귀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은각하께 광명한
미래를 의탁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각하께서는 전보적인민들의
의 심장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입니다.

각하께서 견고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성번역
과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고귀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제5차 백두산위인청송국제축전 참가자 일동
2017년 8월 15일 평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제5차 백두산위인청송국제축전 참가자들
외국의 단체들에서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제5차 백두산위인청송국제축전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꽃바구니를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김정남동지에게 축전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조. 둘째 2017년
백두산위인청송대회 몽골준비위원회 위원
장과 앤 구센스 벨지그조선친선협회 서기
장이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글밭이 죄여져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제5차 백두산위인청송국제축전에 즈음
하여 2017년 백두산위인청송대회 영국
준비위원회, 조선의 자주평화통일기
장과 앤 구센스 벨지그조선친선협회 서기
장이 전달하였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께
꽃바구니를 15일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각각
전달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께
꽃바구니를 15일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각각
전달되었다.

본사기자

백두산천출위인들께
여러나라와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서 축기,
폐달, 명예칭호, 상, 상장, 선물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외국의 단체들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국
해방 72돐에 즈음하여 15일 2017년
백두산위인청송대회 아메리카자연준비위원
회, 빠루준비위원회에서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한편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
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라는 글밭이 죄여져
있었다.

본사기자

백두산천출위인들께 제5차 백두산위인
청송국제축전에 즈음하여 2017년
백두산위인청송대회 국제 및 지역준비위
원회들, 국제민주단체들, 여러 나라의 정
당, 단체, 기관들과 각계인사들이 축기,
폐달, 명예칭호, 상, 상장, 선물들을 드리
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2017년 백두산위인청송대회 몽골준비위원
회, 2017년 백두산위인청송대회 페루로드
준비위원회, 페루로드조선친선협회, 조선의 자주
평화통일기지에 에파도르위민회, 조선인민
의 친선문화협회에서 상장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
구에서 칭립 50돐 기념메달을,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포르국제재단에서 명예지도자증서를
드리였다.

씨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력성
과 뿐 아니라 세계 이트 아시아 차협회에서
상장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2017년 백두산위인청송대회 페루로드
준비위원회, 라오스조선친선협회, 백두산체스
조선친선협회, 페루로드조선친선협회, 조선의 자주
평화통일기지에 에파도르위민회, 조선인민
의 친선문화협회에서 상장을 드리였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
구에서 칭립 50돐 기념메달을,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포르국제재단에서 명예지도자증서를
드리였다.

또한 몽골 험유한책임회사에서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네성영용 김정숙상을, 내
팔기자협회에서 세기의 위대한 영웅 상장
을, 메히코인민사회당, 도이월란드 아시아월
드네트워크회사 사장이 선물들을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원쑤격멸의 의지를 천백배로 분출시켜 전인민적인 총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자강도, 함경북도, 라선시 군중집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자강도, 함경북도, 라선시 군중집회가 14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집회장들은 주체혁명의 위대한 동력인 자력자강으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 등을 무자비하게 쳐갈기고 이 땅 위에 기어이 천하제 일강국, 인민의 학원을 보완듯이 일떠세우고야말 필승의 기상안고 모여온 각계층 군중들로 차고 넘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집회장들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전면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주체의 책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자!》 등의 구호판들과 글발달, 선전화들이 집회장들에 세워져 있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집회들에 참가하였다.

집회들은 《천만이 충족란되리라》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자강도에서

자강도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리행군 도당위원회 위원장이 랑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김광호,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강계시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리현길,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도당학교 교원 백성남, 청년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장 1비서 심명철 등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우리의 대록간란도로 계트시협발사를 걸고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불법무법으로 조작해낸 《제재결의》를 전면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 친동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가 있는 한 원쑤들이 제이무리 밭아해도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며 우리의 앞길을 막을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바로 천만심장에 새겨진 절대불변의 진리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억척의 성세가 되고 방탄벽이 되어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며

원쑤격멸의 의지를 천백배로 분출시켜 전인민적인 총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고 강조하였다.

함경북도에서

도안의 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경제도 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 우리식의 첨단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군자리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당의 병진로선을 결사관철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업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천민항전에 용역 멀쳐나 사회주의조국을 결사수호하며 경제강국건설의 주체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지식인들이 자력자강의 위력을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증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파들을 더 많이 내놓을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반체반미대결전의 전초선에서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만리마시대의 격전장을 청년판으로 만들어 날에 날에

마다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라선시에서

함경북도군중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리상판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랑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일,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지배인 김광남,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청진시 청암구역 청암협동농장 판리위원장 신애숙,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청진평산금속대학 학장 김광수, 청년들을 대표하여 청진제2사범대학 학생 석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미국이 대록간란도로 계트시협발사를 걸고들며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제재결의》를 조작해낸것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蔓행이며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특대형국가례로 범죄이라고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사사건건 걸고들면서 수차례에 걸쳐 유엔《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냈지만 그 어려운 제제도 압력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대표하여

롯한 도안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마치로 원쑤들의 제재와 압박의 사슬을 끊어버리며 원쑤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히 선불질을 한다는 전민총결사전에 삼악같이 일떠설것이라고 말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원쑤들의 괴질긴 제재압살책 동속에서도 간고한 투쟁을 벌리며 얻을것은 다 얻고 순에 훨 것은 다. 친 주체조선의 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지식인들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아보려고 허세를 부리는 옷갖 원쑤들이 보란듯이 주체조선의 과학기술력을 파시하는 첨단과학기술성파들을 끊임없이 이루어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들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만장야하고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충진군대오의 척후대답게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군시대 청년집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지금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마다는 사상 최악의 반공화국제제압박과 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에 대한 대처에 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식인들이 존엄높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식인답게 실력전, 두뇌전을 드세게 벌려나감으로써 높은 과학기술성파로 사회주의조국의 힘찬 진군을 적극 추동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이 백두산청년강국의 최후승리를 이루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시안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와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위력을 우리의 일심단결과 자력이 있는 한 지구상의 강적들이 때를 지어 멈버든다 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시안의 로동계급이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인고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제재압살책 동을 걸음마다 깃부서버리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앞당겨 험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더욱 광범위 전개해나갈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원쑤들의 괴질긴 제재압살책 동속에서도 간고한 투쟁을 벌리며 얻을것은 다 얻고 순에 훨 것은 다. 친 주체조선의 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지식인들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아보려고 허세를 부리는 옷갖 원쑤들이 보란듯이 주체조선의 과학기술력을 파시하는 첨단과학기술성파들을 끊임없이 이루어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들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만장야하고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충진군대오의 척후대답게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군시대 청년집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와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위력을 우리의 일심단결과 자력이 있는 한 지구상의 강적들이 때를 지어 멈버든다 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시안의 로동계급이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인고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제재압살책 동을 걸음마다 깃부서버리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앞당겨 험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더욱 광범위 전개해나갈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군중시위들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여갈 불라는 의지

지난 7월 2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4 항복축 예술공연에서는 우리 혁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었다.

그 다음 날인 7월 28일 경에 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천출위인을 우러러 터치는 인민의 환호성

지도밑에 우리 미더운 국방 과학전사들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함으로써 주체의 학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자주적 존엄과 위용을 다시 한번 만방에 파시하였다.

그날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 침략자들을 타파하고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 놓으심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 혁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받으신 뜻깊은 날이기도 하였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전정 그것은 사대와 망국으로 수난 많던 이 땅우에 선 혁명의 새 력사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열화같은 칭송이었고 독창적인

경에 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 선을 제시하시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끌어올리시며 바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돈이 있으면 빼앗긴 국권을

보낸 것이다. … 조선 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 하던 영웅 김일성 장군께서 그 품을 한 용자를 한번 나타내니 장내는

열광적 환호로 숨마할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문에 소리없는 울음을 울었다.»

돌이켜 보면 5천년 역사에 이처럼 하늘땅이 떠나갈듯 한 민족의 합성이 울린 데는 없었다.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시일야방성대곡』의 처절한

소리만이 그칠줄 모르면 조선의

하늘가는,

민족주의자들이 군자금이나

모으며 뒤끌방에 당시 국의 설

음만 하소연 할 때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두사루의 흔총으로

무장투쟁을 시작하신 우리

수령님,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 두사

루를 밀친으로 삼아 독립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사

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새끼

를 치고 또 쳐서 200자루,

200자루, 2만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보라. 총 2000

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해방

할 수 있다. 밀천이 있으니 이것

를 자루 꿔 2000자루,

2만자루가 되게 하자!

조선혁명의 력명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드신 선군의

총대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데려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 배를 갈랐고 이 또 히로부미 (이등박문)를 사살한 애국렬사 안중근도 민족의 수령을 목마르게 바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돈이 있으면 빼앗긴 국권을

보낸 것이다. … 조선 동포가 찾을 것만 같아 남녀로소 모두 가기고 있는 평양에서 운행은 오지 않았다.

이 땅에 독립의 메아리를 울려주신분은 바로 혁명의 총대를 높이 드리고 총대로 웨놈들과 맞서 싸우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형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일제에게

짓밟혀 진심하던 우리 인민에

게 나라를 찾아주시고 총대의

귀중함을 세우주신 민족의 은인

이시다.

우리 귀천에 오늘도 들려오는 것만 같다.

주제 34 (1945)년 10월 14일, 결세의 애국자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에게 인민이 목청껏 터치면 만세의 환호소리가.

당시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경기를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민보』는 력사의 그날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조국해방업적

『미국은 조선의 로켓사정권안에 있다.』,『미국이 조선을 공격한다면 응당한 보복조치와 고통스러운 대가를 감수해야 할것이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싸워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강용한 기상으로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감수하여 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 쿠처에 미국을 다불렀다는데 우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할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강도 일체를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시켜 주신 혁사적인 주체34(1945)년 8월 15일이 있어 우리 인민의 존엄이 하늘끝에 놓은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익압받고 천대받은 인민대중을 역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업을 실현하신것은 우리 인민의 운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기여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혁사적사변이다.

우리 조국은 반만년의 오랜 혁사와 친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이 유구한 민족사에서 일제시민지통치시기는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가장 암담한 시기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선혁명은 우리 인민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면서 두동작인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머리글에서부터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피어린 무장투쟁을 벌리시였다.

인류해방투사는 일찌기 국가적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포악한 제국주의 강적을 헌신해 위대한 수령님과 같은 윤리적 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운명에서 가려져주시였기 때문에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다고, 조상들의 마음까지 합쳐 김일성동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결코 토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걸기 빛내어 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조국통일업을 반드시 실현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공화국을 해치려는 미제의 끈질긴 지배와 압살의 광물들을 무적의 총대의 위력으로 쳐풀어내시였다.

조국의 해방과 통일을 위해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오늘 우리 민족은 사상과 평도, 덕망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 이신 미제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열의 고통과 탐욕으로 전란을 겪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더는 늦출수도 없는 지상의 고행이며 최대의 숙원으로 되고있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상최대의 중대사였다.

아버지 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별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후대들에게 조국통일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고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혁명투쟁의 단계들마다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창다운 민족자주의 로선, 애국애족의 로선, 조국통일은 성범죄는 피뢰외교계에 만연하는 악성고 질병이다.

국제외교사에 뮤페가 없는 성추문사건으로 탄인은 윤창중성추행사건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그것은 2013년 5월 박근혜의 미제에 의해 강요된 조국통일은 더는 늦출수도 없는 지상의 고행이며 최대의 숙원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과 관련하여 민주평화공산당 중앙위원회가 9일 특별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치 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미본토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은 커다란 악몽속에 잠겨있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여 방글라데시 자치야당, 민민맹, 주체사상연구소가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원전성공으로써 미국에 혼속 강타를 들이내고 전략적 핵무력의 위력을 온 세계에 시위한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미국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원전성공으로써 미국에 혼속 강타를 들이내고 전략적 핵무력의 위력을 온 세계에 시위한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조선이 이번에 또다시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본분을 잊고 객관적으나 이를 불어대는 미국의 혼속강타에서 조선을 두고 고개를 돌렸다. 조선이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은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주체 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조치이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제재결의』를 조작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경계에 끌고가고 있다.

미국은 주권국가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는 불법무법의 『제재결의』조작으로 조선에 대한 저항과 김정은각하의 불굴의 신념과 공격정신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평도밀로 조선인민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한 도전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 악수국가 인민들에 세계의 힘으로 민족독립을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 준 여기에 조국해방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20세기 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식민지